

이홍재의 세상만사

울면서 보았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논설고문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담~' 옛된 모습의 18세 소녀(한양대 연극영화과 1년)는 그해(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혜성 같이 등장했다. 유난히 키(178cm)가 커서 경중거리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짧은 머리에 허스키한 목소리. 소년 같은 묘한 매력을 지녔던 그녀. 이름마저 중성적이었으니 남자로 착각한 이들도 많았다. 실제로 그녀보다 한 살 어렸던 홍석천이 한양대에 진학한 것도 가요제에 나온 그녀(혹은 그?)에게 반했기 때문이었다지 않은가.

그녀는 그러나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상업노래가 판치는 가요계에 염증을 느낀 것이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 미국·일본·유럽 등지를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색을 확고히 해 나간다.

그러다 1995년, 갑자기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음악을 듣고 돌아오니 대중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인다. 6집 앨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가 일본에서 발매된 뒤 우리나라에 역수입된 것이다.

이상은(44). 그녀는 이 6집 음반을 통해, 아이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진정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타이틀곡 '공무도하가'는 훗날 최고의 걸작이란 평을 듣는다.

"님아, 님아, 내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 님아, 님아, 내 님아/ 그에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님을 어이 할꼬" 그녀의 노래는 지금 다시 들어도 그 애절한 목소리와 구슬픈 가락으로 인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 그러나 "고조선의 시가(詩歌) '공무도하가'는 이상은에 이르러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슬픔을 내뿜었다"는 김선우(시인·소설가)의 말에 숙절없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다디 소녀의 '공무도하가'

그녀는 어떻게 이런 뛰어난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음반 발매 당시 그녀가 했던 말이 있다. "고교 2학년 고전문학 수업시간 때 선생님께서 '공무도하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시(詩)로 배우고 있지만, 그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불렀던 노래였다'고. 이 말을 듣고 그 멜로디가 남아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곡리자고와 그의 아내 여옥의 설화가 얹혀 있는 노래 공무도하가. 어느 날 자고(子高)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

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白首狂夫)이 술병을 든 채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왔으나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

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가 '공무도하'(公無渡河: 님아, 강을 건너지 마오) 울부짖으며 노래를 지어 부르니 그 소리가 심히 구슬펄다. 아내 또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 모습을 본 자고와 돌아와 금방 들었던 노래를 여옥에게 들려주고, 여옥은 곧바로 그 소리를 받아 공후(우리나라 고대 현악기)로 연주하니, 듣는 자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무도하(公無渡河)/ 공경도하(公竟渡河)/ 타하이사(墮河而死)/ 당내공하(當奈公何)"(아쉽게도 이 노래는 한문으로만 전해진다)

겨울 극장가에 '현대판 공무도하가'라 불러도 무방할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의 어느 아담한 마을. 할머니(89)와 할아버지(98)는 어디를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피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걷는다. (사실 그 모습이 어느 기자의 눈에 띄어 지방신문에 보도된 이후, 텔레비전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이번에 영화로도 제작된 것이다. '커피 한복'은 해마다 자녀들이 생일선물로 해 준 것이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다. 봄에는 예쁜 꽃을 서로의 머리에 꽂아 주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물

장구를 치며, 가을에는 낙엽을 서로에게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던 손을 호호 불어준다. 두 분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치 신선처럼 살아가는 세월이 무려 76년.

할아버지는 밥이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 없으면 조금 들 뿐, 절대 맛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면서도 무섭다며 할아버지에게 보초를 서게 하는 것도 모자라 노래까지 불러 달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최고 로맨티시스트인 할아버지는 군말 없이 모두 다 들어준다.

사랑이 뉘냐고 물으신다면

아, 사랑이란 그런 것. 상대방이 원하는 작은 것들을 맡아서 들어주는 것. 내 작은 불만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걸 보며 즐거워할 줄 알며, 작은 배려에도 늘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것.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대의 곁에서 늘 지키며 함께하는 것.

하지만 어쩌랴. 언젠가는 갈라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거늘. 할아버지를 보내야만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애처롭다. 병석에 누운 할아버지의 한 웃을 태우며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말이 우리를 울린다. "내가 곧 갈게요.

할아버지 먼저 가서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금방 못 가거든 할아버지가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면 내가 할아버지 손잡고 '커피 한복'으로 세파란 치마를 입고, 노란저고리를 입고, 손을 잡고 그렇게 갑시다."

전혀 연출 없이 1년 3개월 동안 노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영화를 찍었다는 진모영(44·광주 문성고 및 전남대 법대 출신)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손잡고 와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감독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영화의 주제 또한 '사랑'임을 넘치지 않게 알려 주는 것이다. 가식이 없는 순도 100%의 사랑.

그래서 영화는 또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인이 나 아내·남편 그리고 부모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는 그렇게 우리의 가슴속에 따뜻한 화롯불을 지피는데.

함께 영화를 본 그녀는 왜 그리 눈이 통통 붓도록 울었을까.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목이 메었던 게지. 영화를 보고 눈물 콧물 다 쏟았다는 그 많은 관객들, 그들 또한 저마다 시린 사연 하나씩은 지니고 있을 테고, 그러나 자기 설움 섞어 그렇게들 울음 울었던 게지.



전남지사를 역임한 도백(道伯)들이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 참석, 이낙연 현 지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이균범, 최인기, 송연중, 김창식, 고건, 이낙연, 전석홍, 문창수, 허경만, 백형조, 박준영. <전남도 제공>

역대 도지사들 최대 걱정은 '인구 감소' 전남도 10명 초청 '도정보고회'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사들 지낸 10명의 걱정은 역시 갈수록 위축되는 '도세(道勢)'에 있었다.

전남도가 18일 오전 역대 도지사 10명을 초청해 마련한 '도정보고회'에 전직 도지사들은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가 돼야야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그만큼 도백(道伯)들은 '할 말'이 많았다. 이날 참석한 고건(18대), 김창식(21대), 전석홍(22대), 문창수(23대), 송연

중(24대), 최인기(25대), 백형조(26대), 이균범(28대), 허경만(31, 32대), 박준영(34, 35, 36대) 전 지사는 걱정과 격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김창식 전 지사는 "400만 도민이었는데 이제는 200만이 됐다"며 "다시 인구가 늘어나야 전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창수 전 지사는 "경북,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고, 송연중 전 지사는 "행정이나 산업 여건에 인적 자본 역시 안 좋는데, 이 여건을 극복하고 윤리, 단결력, 민주주의 등 장점도 살려내자"며 격려하기도 했다. 고건 전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 전남에 가는 기대가 크며 미력이나마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남도가 전 지사들의 재임기간을 감안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

난 1980년 377만9000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지난해 193만2000명으로, 13년 만에 반토막났다.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인 학생 수는 124만3000명에서, 4분의 1 수준인 34만 2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고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은 즉시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석기자 chadol@

문화전당특별법, 與가 발목 잡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

내년에 개관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시민사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박해자(광주 서구 을)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법(이하 아특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명시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불참시키고 하는 바람에 전체회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당에 유리한 일부 법안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

도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다음 전체회의의 일정은 현재로선 미정이다.

전날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정안이 발목을 잡히자,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법시민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소집됐던 국회 교문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인 태도로 무산됐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시민연석회의는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관련 법안이라 운운했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과 망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야, 정부의 합의마저 정략적인 흥정 대상으로 삼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기·최권일기자 penfoot@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 제 140611-중-59153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편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 강의 파견 업무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